

방송 단신

개국추진 현황 설명
국회 정각회 초청
불교텔레비전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태웅)은 지난 25일 서울가든 호텔에서 국회 정각회(회장·권익현) 회원을 초청, 개국추진 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이국장은 불교TV의 설립취지에 맞는 방송계획과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가족윤리 특집
BBS, 31일부터

흔히 알려진 가족윤리를 불교적으로 진단하고 방향 모색하는 시간이 불교방송 '오늘을 이끄는 불교'(PD 박상원)에서 마련됐다.

정병조(동국대 국민윤리) 교수를 초청, '불교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방송되는 '오늘을 이끄는 불교'는 31일부터 건전한 가정, 현대가정의 문제점, 가족구성원의 문제, 가정교육, 바람직한 가정, 불교와 가정을 내용으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된다.

'오늘을 이끄는 불교'는 월~금요일 11시 5분부터 20분까지 방송되는 현대생활의 불교적 해석 프로그램.

교리강좌 회향법회
정인스님, 공개강좌로

불교방송 '교리강좌' 프로그램에서 6개월간 <근본불교 교리강좌>를 진행한 정인스님이 지난 28일 프로그램 회향법회를 3층 공개홀에서 가졌다.

이날 법회는 공개강좌 형식으로 애청자들의 질문과 스님의 법문으로 진행됐다.

한편 '교리강좌'는 정인스님의 뒤를 이어 한정섭 법사가 지난 17일부터 <불교교단사>를 강의하고 있다.

“영가여 극락왕생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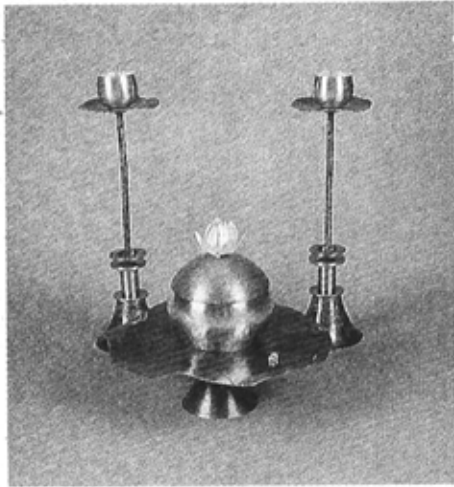
조계종 천도재, 태고종 49제등 성수교 참사 고힌위로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탄성)은 지난달 3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성수대교 붕괴와 충주호 유람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 위령재를 봉행했다.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동안 예도기간으로 설정한 조계종이 봉행한 이번 합동 위령재에는 총무원장 탄성스님 등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승가대 석회회동 스님들과 유가족 등 5백여명이 참석,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였다.

한편 태고종(총무원장·서봉)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참사에 따른 희생 영령들을 위로하고자 희생32영가들의 49제등을 봉행한다.

수대교 참사에 따른 희생 영령들을 위로하고자 희생32영가들의 49제등을 봉행한다. 49제단 영가들의 영혼 천도를 위하여 49일동안 부처님께 기원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의식으로써 초월재에서 육월재까지는 태고사 삼천불전에서 봉행하고 마지막 칠월재는 봉원사에서 종단의 명망있는 대덕스님 및 민간문화재스님들이 참석하여 여법하게 봉행된다.



◇'연꽃공양'...양승욱씨의 제22회 동아공예대전 대상작.

보우국사 탄신법요식

태고종 사암 일제히 봉행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은 종조 태고원종 보우국사 탄신 6백93주년 기념법요식을 지난 달 25일 총무원과 전국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했다.

보우국사가 주석했던 북한산 태고사에서 봉행된 대법요식은 서봉 총무원장등 종단 스님들, 전국신도회, 동방불교대동 5백여명이 동참했다.

태고 보우스님의 원유회향과 화합정신을 깊이 인식해 한국 불교의 전통법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김상백)는 내년 10월을 '태고 보우국사의 달'로 지정해 절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문화체육부로 발송하고 '태고 보우국사의 달' 지정 결의법의를 '봉행하고 중흥사상을 함해하는 성지 순례를 실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일 간소성 무석시 소령산상에 높이 88m에 이르는 세계 최대 청동 대불 공사에 착공했다.

당나라 고승 현장이 작명한 소령산의 이름을 따 영산 대불로 명명된 이 청동 대불은 석가모니 입상으로 연화 높이만 28m에 이르며 96년말 완공돼 개안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불의 주조는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인 대어산 보련사에 있는 세계 최대 청동 조각인 천단대불의 제조회사인 남경신공기계장이 맡았으며, 설계는 화둥건축설계원이 맡았다.

이 입상불교대불의 주조와 함께 기독교신앙에 근본을 두고 신력을 공포, 악습의 철폐를 주장한 태평천국시대(1851~1864)와 극과상이란 친 문화대혁명(1966~1976)때

구독신청
전화: 737-8881

두차례나 파괴된 역사적인 사찰 상부사도 새로 복원된다.

안정사 괘불 천전
법화중 신도 2천여명

대한불교 법화종 안정사(주지 설호)는 지난달 21일 법화종 문구암 종정, 대오 총무원장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괘불 천전법회를 봉행했다.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282호로 지정돼 있는 안정사 괘불은 길이 13M 폭 10M로 고려말 제작된 것이다.

높이 88미터 청동대불 조성
중국, 강소성 소령산에

중국 정부는 지난 20일 간소성 무석시 소령산상에 높이 88m에 이르는 세계 최대 청동 대불 공사에 착공했다.

당나라 고승 현장이 작명한 소령산의 이름을 따 영산 대불로 명명된 이 청동 대불은 석가모니 입상으로 연화 높이만 28m에 이르며 96년말 완공돼 개안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불의 주조는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인 대어산 보련사에 있는 세계 최대 청동 조각인 천단대불의 제조회사인 남경신공기계장이 맡았으며, 설계는 화둥건축설계원이 맡았다.

이 입상불교대불의 주조와 함께 기독교신앙에 근본을 두고 신력을 공포, 악습의 철폐를 주장한 태평천국시대(1851~1864)와 극과상이란 친 문화대혁명(1966~1976)때

구독신청
전화: 737-8881

두차례나 파괴된 역사적인 사찰 상부사도 새로 복원된다.

안정사 괘불 천전
법화중 신도 2천여명

대한불교 법화종 안정사(주지 설호)는 지난달 21일 법화종 문구암 종정, 대오 총무원장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괘불 천전법회를 봉행했다.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282호로 지정돼 있는 안정사 괘불은 길이 13M 폭 10M로 고려말 제작된 것이다.

인력

“중국어도 배우고
장애스님도 도우세요”

『포교 중국어』 강좌가 마련된다.

오는 14일부터 개강하는 포교 중국어 특강은 『장애스님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미영순(현대 중국연구회 수석연구위원)씨가 지도한다.

강의에는 스님, 일반인, 직장인, 주부등 유익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미영순

<현대 중국연구회 수석 연구위원>

있으며 '회비는 10만원이다. 이 회비는 기본자금을 제외한 전액을 장애인 스님들의 포교활동을 위해 쓰여진다.

『장애스님 후원회』는 장애스님들이 장애인 스님들과 함께 포교활동을 하고 신력을 공포, 악습의 철폐를 주장한 태평천국시대(1851~1864)와 극과상이란 친 문화대혁명(1966~1976)때

구독신청
전화: 737-8881

두차례나 파괴된 역사적인 사찰 상부사도 새로 복원된다.

안정사 괘불 천전
법화중 신도 2천여명

대한불교 법화종 안정사(주지 설호)는 지난달 21일 법화종 문구암 종정, 대오 총무원장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괘불 천전법회를 봉행했다.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282호로 지정돼 있는 안정사 괘불은 길이 13M 폭 10M로 고려말 제작된 것이다.

社 告

회귀·절판본 재출간 동참안내
불서보급의 공덕, 여시아문이 함께 합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회귀·절판본 불교서적류 발굴에 재출간 작업을 펼칩니다. 가치 있는 불서, 그러나 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는 불자들을 위해 결치는 불서 재출간 사업에는 회귀본, 절판본 불서를 소장하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재출간 대상 도서: 회귀본이나 절판되어 유통되지 않는 불서
접수기간: 수시
연락처: 종로구 경자동 110-33번지 도서출판 여시아문
(문의: 737-8881)

주부 실행담 모집

감동의 신앙체험 독자들께 나눴다

신앙체험담, 기행, 일기, 기도영향담등을 모집합니다. 주부님들이 신앙 현장에서 겪은 감동적인 체험담을 보내주시면 16편 주부실행담에 실어드립니다. 원고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시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낼곳: 종로구 경자동 110-33번지 현대불교사
주부실행담 담당자 < 문의: 722-4162 >

주부 모니터 모집

정법 포교의 파수꾼이 될 주부님을 모집합니다.

기사 정보 여론제공 '현대불교의 가정기차'

현대불교를 읽으면서 느끼는 소감이나 주위의 의견 그리고 각종 정보와 여론을 수집해 보내주시 주부모니터에 주부님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격: 주수지에 2년 이상 거주하신 주부님
구비서류: 자필이력서 1통(영함관사인 2매), 주민등록 초본 1통
신청: 서부전역후 개별통지
마감: 1994년 11월 30일
보낼곳: 종로구 경자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주부모니터 담당자 < 문의: 722-4162 >

현대불교신문 법공양 안내

전법은 보시의 근본 불자의 기쁨

불교의 생활과 현대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창간과 함께 보현행자의 서원을 받들어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펼칩니다. 교도소 근무 등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합니다. 전법이 법공양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필자 보실 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사가 선정하여 우송합니다.

보낼 곳: 교도소 근무대 병원법당 사회 복지시설 등
문의: 총무국 (02)737-8881
주소: 110-170
서울 종로구 경자동 110-33
한아름불교회관

현대불교신문사

서암스님의 탈 문중론

탈해야 한다는 바램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때 정종 서암스님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중의식에 얽매지 않는 승가종도를 조성할 때만이 한국 불교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교리강좌'는 정인스님의 뒤를 이어 한정섭 법사가 지난 17일부터 <불교교단사>를 강의하고 있다.

서암스님의 탈 문중론

스님의 지적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불자들은 또다시 기대를 모을 것이다. 누가 총무원장이 되느냐에 대해서 초연할 뿐인 말없는 대다수의 불자들은 '고풍속에 탄생한 개혁의 외나 만큼 이번만큼 문중에 얽매어 종단다툼하는 선거가 아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탈해야 한다는 바램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때 정종 서암스님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중의식에 얽매지 않는 승가종도를 조성할 때만이 한국 불교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4.10 승려대회와 종정불신임이라는 걸잡을 수 없는 사태 전개 과정에서 혼연히 사퇴를 선언하고 풀려갔던 스님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목탁소리

정성운 기자

안정사 괘불 천전

법화중 신도 2천여명

대한불교 법화종 안정사(주지 설호)는 지난달 21일 법화종 문구암 종정, 대오 총무원장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괘불 천전법회를 봉행했다.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282호로 지정돼 있는 안정사 괘불은 길이 13M 폭 10M로 고려말 제작된 것이다.

구독신청
전화: 737-8881

두차례나 파괴된 역사적인 사찰 상부사도 새로 복원된다.

안정사 괘불 천전

법화중 신도 2천여명

대한불교 법화종 안정사(주지 설호)는 지난달 21일 법화종 문구암 종정, 대오 총무원장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괘불 천전법회를 봉행했다.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282호로 지정돼 있는 안정사 괘불은 길이 13M 폭 10M로 고려말 제작된 것이다.

구독신청
전화: 737-8881

두차례나 파괴된 역사적인 사찰 상부사도 새로 복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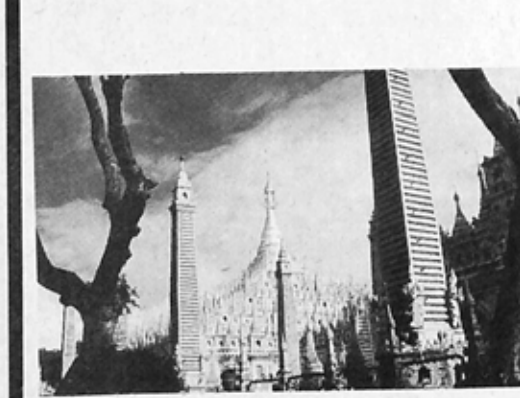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Table with columns: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 일정, 요금, 출발일. Lists various travel packages to India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코스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수미산 여행사는 열린 세상을 향한 불자 여러분들의 눈, 발, 귀가 되겠습니다.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 상기일정은 출발당시의 항공사계절/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